



Feature articles
2008 육계산업 부문별 우수 업체 동물약품

바이코신, 콕시듐증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 바이엘코리아(주)



○ 콕시듐증은 닭의 증체율을 떨어뜨리고 사료요구율을 높여 양계농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질병이다. 또한 닭을 대량 사육하면 거의 예외 없이 콕시듐증이 발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육계 사료에는 항콕시듐제가 첨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시듐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꾸준히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이코신은 이처럼 농장에서 콕시듐증이 발생할 경우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항콕시듐제이다.

콕시듐의 면역과 바이코신의 작용

콕시듐증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소독약에 의한 박멸이 힘들고, 내성 발현이 쉽게 나타나며, 어미닭에 의한 수동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예방 및 박멸이 쉽지 않은 질병이다. 이러한 이유로 콕시듐증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은 항콕시듐제를 사료내 첨가해 발병을 억제하거나 닭에게 면역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바이코신은 콕시듐이 장관 세포내에 들어가 활동하는 모든 시기에 작용하여 콕시듐 원충을 죽인다. 이는 대부분의 항콕시듐제가 원충의 생활사 일부 단계에만 작용하는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또한 바이코신은 세포내 단계의 원충을 죽여서 3일 정도 머무르게 함으로써 닭의 면역계가 원충을 인식하여 면역 능력을 형



성하게 한다(정상적인 원충은 면역계의 탐식을 피하기 위해 세포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

바이콕신의 특·장점

- ① 바이콕신은 모든 콕시듐 원충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소장콕시듐증, 맹장콕시듐증 등 모든 콕시듐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 ② 바이콕신은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
- ③ 바이콕신은 닭에게 안전하다.
- ④ 바이콕신은 물에 타두어도 48시간 안정하다.
- ⑤ 바이콕신은 모든 세포내 단계에서 작용하므로 2일간의 투약으로 콕시듐증을 치료할 수 있다.
- ⑥ 바이콕신은 닭의 자연적인 면역 형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백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⑦ 바이콕신은 모든 사료 첨가 항콕시듐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아이노포어제와 사용시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⑧ 바이콕신은 액상 제제이므로 투여가 편리하다.

바이콕신의 효과적인 사용

1) 질병 발병시 치료

병아리 입추와 동시에 바이콕신을 구매·비치했다가 콕시듐의 다발 일령인 3주령을 전후하여 계분을 잘 관찰 후 이상시 바로 음수로 2일간 투여한다. 주로 분변 상태나 닭의 상태로 콕시듐증 감염 여부를 판단하여 치료한다.

2) 예방적 투여

- 통상 16~28일령이 감염 가능 일령이므로 각 농장별로 다발 2~3일전에 2일간 음수로 투여한다.
- 스트레스, 질병, 기타 사유로 사료 섭취가 감소한 경우 음수로 2일간 투여한다.

3) 투여용량

물 100ℓ에 100㎖를 섞어서 48시간 투여한다. 희석시 다량의 물에 넣어 천천히 저어 희석한다.

4) 자동투약기가 설치된 농장에서의 사용

원칙적으로 자동투약기를 통한 투약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는 과포화로 인한 침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자동투약기를 이용해 바이콕신을 투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중화제를 만들어서 투약해야 한다.

● 문의 : 080-022-8590 